

## 음악교육동향\*

### 2016 추계학술세미나 보고서

윤문정(진주교육대학교)

한국음악교육학회에서 주관하는 추계학술세미나가 2016년 10월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되었다.

기존의 춘·추계 학술세미나에서는 연구 발표 중간에 음악 연주가 있었지만, 이번 2016 추계학술세미나에서는 음악 연주 없이 연구 발표와 토론으로만 구성되었다. 세 명의 연구자가 세계음악, 구성적 음악표현, 구전심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고, 각각의 연구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발표를 맡은 손민정 박사는 ‘2016 스미소니언 세계음악 수업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연구자는 세계음악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스미소니언 포크웨이즈 세계음악 교수법 자격증 과정(Smithsonian Folkways Certification Course in World Music Pedagogy)’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참여했던 스미소니언 포크웨이즈 교수법 과정은 총 17차시(1차시-90분)로 구성되었는데, 크게 5차시의 세계음악 교수법 관련 세미나와 12차시의 음악연주 수업으로 구분된다. 5차시의 세계음악 교수법 관련 세미나는 일명 WMP-SFW(World Music Pedagogy-Smithsonian Folkways Workshop)로 알려진 ‘5단계 수업모델’로 세심한 감상(Attentive Listening)-몰입적 감상(Engaged Listening)-연주적 감상(Enactive Listening)-통합적 이해(Integrating World Music)-창조적 이해(Creating World Music)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는 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유형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스미소니언 포크웨이즈 세계음악 교수법 과정과 유사한 교수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5단계 수업모델에 입각한 지도안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 대한 토론자는 최진호 박사로서미소니언 포크웨이즈 세계음악 교수법을 한국 음악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서평 또는 논문평, 콜로키움 및 학술대회 보고, 연구 동향 등을 소개함.

김규도 박사는 ‘전래동요 <별 하나 따서>를 이용한 구성적 음악표현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놀이를 일(학습)로 전환시키는 교육방법으로서, 구성활동에 근거한 음악만들기(구성적 음악표현)의 교육적 의의를 검토하고, 전래동요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음악적 감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별 하나 따서’를 이용한 교수·학습 과정을 제시하고, 실제 초등학교 4학년 수업에 적용하여 구성활동으로 인해 ‘놀이’가 ‘일 혹은 학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동들이 전래동요와 놀이에 익숙해질 만큼 충분히 활동해야 한다는 점과 놀이에서 일(학습)로 전환되는 둘 사이에 전래동요를 형성하는 언어적 리듬, 신체움직임 등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 대한 토론을 맡은 윤관기 박사는 개개인의 음악성을 발달시키는 교수지도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연구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방식과 구성활동이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 발표 주제는 장근주 박사의 ‘Implication of Aural Learning in Korean Traditional and Jazz Music’으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구전심수 교수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서양음악의 교수법과 비교 하였다. 먼저 한국의 구전심수와 구음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Learning by listening, memorization, writing own music으로 나누어 한국의 전통 구전심수와 재즈를 배우는 방법을 상세히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listening, recording, practicing, memorization, composing으로 구성되는 ALP(Aural Learning Project)의 유용함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aural learning에 대한 중요성과 교사의 태도 및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미숙 박사는 이 연구에 대한 토론을 맡아서 국악 용어가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구음을 단순히 ‘oral sound’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구전심수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길 희망하였다.

이번 추계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는 세부적인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르지만 세계음악, 전래동요, 국악과 재즈라는 다문화적 주제와 그와 관련된 교수법적 내용이 다루어졌다. 발표자와 토론자뿐만 아니라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심도 있는 질문과 토론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음악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양한 의견 교환과 음악교육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보면서 춘·추계학술세미나의 중요성과 앞으로 세미나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춘·추계학술세미나가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음악교육 관련자와 음악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람들이 춘·추계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음악교육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의 연구 발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사람들의 참여와 노력이 더해진다면 음악교육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다.